

#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 256

Spring 2025

### 성시화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다

### 기획특집

감동을 주는 신앙인

옛보다

『풀잎』의 시인 월트 휘트먼

### 특집

엄마! 동생 만들어주세요.

### 문화에 빠지다

맛기행 어버이날 행복한 외식

영화이야기 청소년들의 기적

영화감상 김용성(Yongsung Kim)-Biblical Artist

건강 쓸개 빠진 놈

책속의 책 권해생의 '빈 무덤 사건'

김양현의 '영화로 보는 세상'

김병완의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 성시화

**03**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다 | 최상도 목사

## 기획특집

**07** 감동을 주는 신앙인 심정례 명예권사 | 이연희 목사

**09** 옛보다 | 이영규 목사

**11** 『풀잎』의 시인 월트 휘트먼 | 박익수 집사

## 특집

**13** 엄마! 동생 만들어주세요. | 이관형 원장

##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15** 맛 기행 어버이날 행복한 외식 | 이관형 권사

**17** 영화이야기 청소년들의 기적 | 김춘배 화백

**19** 명화감상 김용성(Yongsung Kim)-Biblical Artist

**20** 건강 쓸개 빠진 نوم | 이시형 원장

**21** 책 소개 책속의 책 | 박도준 목사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후원  
참여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평 | 김춘배 화백

##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다

### 김영조 목사(춘천 온누리교회) 편

최상도 목사  
(사암교회, 공동편집장)

지난 1990년 5월에 창립되어, 춘천의 중건교회로 성장한 춘천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누구보다 춘천 성시화 운동을 앞장서서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가던 김창환 목사(온누리교회 원로목사,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역임)가 아름답게 은퇴하고, 교회의 후임 담임자로 지목된 주의 종은 김영조 목사(김영미 사모)이다. 부임한 지 1년 가까운 시간을 동분서주하며 열정적으로 교회사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김 목사. 제2의 도약을 위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춘천 온누리교회와 김영조 목사의 인생 여정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자.



#### ▲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담임자로 정식 부임하신 지 1년이 채 안 되셨네요.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지난 2023년 11월 말에 동사(同事) 목회자로 초청되어 춘천 온누리교회에 부임했고, 지난 2024년 5월에 정식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선교사로 20여 년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일했습니다. 담임자로 부임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나간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사역했습니다.

▲ 김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목회로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주시지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했고, 주로 서울 성북구에서 자라고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모태신앙인 관계로 어머니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주로 그랬듯 저의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고, 만취하시면 주사(酒邪: 술을 마신 뒤에 버릇으로 하는 못된 언행: 편집자 주)가 매우 심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눈물로 신앙생활을 하셨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저절로 몸에 배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철야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에는 다 참여하였고, 지금 돌아보면 집보다 교회가 훨씬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 기도 모임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작 목회의 길에 먼저 사모함을 가진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을 성실히 공부하셔서 결국 여전도사가 되셨습니다.

▲ 목회자의 길과 선교사의 길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많은 시간을 일반 목회가 아닌 선교사로 보내게 되셨습니까?

어머니가 잠실의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거기에서 해외선교 모임이 주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하던 즈음에 교회 창립기념일을 맞아 부흥회 강사로 조동진 목사(한국교회 선교의 아버지로 불림: 편집자 주)께서 오셨습니다. 다소 신비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냐 환상”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영안이 열리면서 강단의 한쪽 벽에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 달라”고 나를 향해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송으로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를 부를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서 끝까지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은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또 아내인 김영미 사모의 전적인 협력 없이는 열악한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마음도 미리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김영미 사모는 중환자실 간호사이면서 예수제자운동(JDM)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JDM선교대회를 통하여 이미 해외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동일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 아프리카에서의 사역은 어떠하셨습니까? 성공적인 사역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처음 사역한 곳은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니제르(Niger)였습니다. 보통 사하라사막으로 유명하데, 사막 남쪽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프랑스식민지였던 탓에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이고, 이슬람교 신자가 90% 이상 되는 영적 불모지입니다. 군사쿠테타가 빈번한 곳이었는데, 첫 번째 니제르 사역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기 어렵습니다. 언어연수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문화적 적응도 어려웠습니다. 3년 정도 사역한 후 철수하였는데, 그 후 주님이 휴식 겸 훈련으로 얼마간 국내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제자운동 본부 선교 국장으로 섬기면서 춘천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사역자로 온누리교회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이 다시 아프리카 세네갈로 부르셨는데, 인연이 된 온누리교회 등의 기도와 물질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2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네갈에서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니제르 사역을 통해 힘겨운 예방주사를 맞았고,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특별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영미 사모의 새벽기도를 통한 영적 재무장도 한몫했습니다. 예비하시는 여호와이레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네갈 현지에서 한국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지만, 큰 은혜가 있어서 장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년을 사역하고, 지금의 선교 파송교회, 온누리교회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춘천 온누리교회 2대 담임 사역자로 부임하셨는데, 비전과 사역의 중심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지난해,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는 과정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간증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원상복귀」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이것도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각인데요, 아시는 대로 원래의 뜻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입니다. 김창환 원로 목사님의 1대 사역을 통해 넓은 목양지, 좋은 건물 등 하드웨어적인 교회의 토대와 국내외 선교의 기초는 잘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누적된 은행융자금의 해결을 위해 「원상복귀」운동을 벌이는데, 재해석한 의미는 기도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주여, 원금을 상환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소서”(원상복귀)입니다. 이러한 은행 융자금 갚기 운동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교회 본연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을 예배, 교제, 성장, 섬김, 4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힘쓰고 있는 것은 예배 개혁을 통해 예배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재편성을 통해 교우 상호 간 보다 깊이 있게 교제하는 소그룹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또한 각종 유의미한 취미 동아리도 공동체 내에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예배도 획기적으로 수요성경대학으로 전환하여 성도들의 실제적인 영적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기제로 4개월간 진행되는데, 올해는 3개의 강좌로 구약파노라마(담당 이진호 목사), 신약파노라마(김진 목사), 교리이야기(박일준 목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학은 기본 신앙적 소양을 만드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직분자 임명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저희 춘천 온누리교회를 사랑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0차 새벽기도 총진군(3주간) 마치고

## 심정례권사(춘천중앙성결교회/담임목사 장기동) 온 가정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가정 두 번째 이야기

이연희 목사  
(아미교회, 성시신문편집위원)

### 1. 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의 삶!

“우리는 진골이지요, 신앙적으로 말하면~”이라고 말씀하시던 심 권사님은 선친 대로부터 신앙을 계승 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온 삶을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6.25 피난 시절과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시대적 고난의 환경 속에서 넉넉함이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 심 권사님은 신앙적으로나 여러 환경 면에서 고난을 느껴보지 못하셨다고 한다. 결혼과 연애의 과정에 생긴 아버지에 대한 저항심으로 고등공민학교 교사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주변에 대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 가난한 가정에서 힘겹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셨기 때문이다.

심 권사님이 늘 마음에 담고 좋아하며 부르는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되새겨볼 때, “늘 돌보아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다.

### 2. 세계여성연합회에 헌신한 삶

세계여성연합회는 세계 여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 이를테면 가정폭력, 빈곤, 건강, 무력함, 스스로 결정 못하는 일, 인권 문제 등을 합심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심 권사님은 “같은 날, 금요일, 같은 시간, 같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전세계 회원들이 오직 여성들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신앙단체”라고 설명하시며, 이 단체의 회장으로 섬기며 희생과 헌신, 믿음과 헌신의 관계를 몸소 실천하게 된 것이 가장 인상 깊다고 하셨습니다. 심 권사님께서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회원이 늘고, 사역이 활발하게 확장되며 든든한 여성사역의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1975년 창립하여 제1차 여성대회가 멕시코에서 실시되었다. 이 행사에는 138개국의 2천여 명이 참석하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러한 기관의 회장으로 역임한 것은, 심 권사님께는 감사한 일이지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희생을 치르며 여성 리더십을 발휘했던 은혜의 여정이었다.



### 3. 새벽기도 반주자로 기도하는 삶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었어, 이렇게 힘들게 해.’라는 말을 하는 목회자가 있을 정도로 새벽기도는 힘든 사역이다. 심 권사님은 이른 새벽에 드리는 예배 반주를 10년을 넘게 하고 계신다고 했다. 성악 전공자이다보니 피아노를 치다 틀릴 때가 있다. 그러면 남편 장로님께서 ‘어디 틀렸어.’, ‘왜 틀리게 해.’라고 지적하거나, 편잔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때는 피아노 보는 것조차 마음이 떨리기도 했다고 한다.

“어떻게 새벽예배 반주를 하시게 되었나요?” 질문하니 “장로님이 새벽기도 차량봉사를 하게 되어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 반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지요”라고 하셨다. 그렇게 시작한 새벽예배 반주. 가기 싫고, 피곤할 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속하고 계신가요?” 여쭙보니 “마음이 무겁게 시험이 들 때는 가기 싫어 자신과 싸우다 어느 날은 가지도 않고, 심지어 장로님께 거짓말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날 자동차 바퀴의 펑크 나는 일을 경험하고 뉘우쳤어요.”하고 대답하셨다.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려는 권사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자동차 바퀴의 펑크를 통하여 반성하고, 장로님께도 고백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심 권사님. 10년이 지난 이제는 거의 틀리는 일이 없이 반주를 섬기고 계신다고 한다.

심 권사님은 자신 뿐 아니라 세 명의 따님들이(지난 호에 두 명의 딸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정정합니다.) 음악 연주가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친정아버님의 사랑과 후원을 깊이 감사하고 계셨다.

남편의 직장 문제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면서도 본교회(춘천중앙성결교회)에 30여 년간 오르간 반주로 섬겼던 큰 딸의 이야기. 공부를 하기 싫어하던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고 고2 때부터 첼로 연주를 시작해 강대 첼로 전공자로 진학하여 연주가가 된 사연, 막내딸이 어려운 유학 생활 중에도 언어습득과 재정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고 마치게 된 것, 남편 장로님께서 ‘마라나타 남성중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간증하시며 말씀을 맺으셨다.

글을 맺으며 찬양과 기도 새벽예배 반주로 헌신하고자 건강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심정례 권사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옛보다

이영규 목사

(신복성결교회, 성시신문편집위원)

아내가 건네준 한 잔의 따뜻한 커피가 가슴 깊이 퍼질 때, 문득 그곳에서의 부담이 결국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의 기쁨을 누리봅니다. 그곳은 바로 알바니아와 몰도바입니다.

원화를 유로로, 다시 유로를 알바니아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전 손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손실 속에서 알바니아에서의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명에 따라 나아가다 보니, 환전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잔돌이가 될 수 있을까요?

결이 다른 말이지만, 이곳에서도 한국의 이단들이 대규모 행사와 물량 공세로 진리를 흐리고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로 인해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손실의 은혜를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힘차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짐해 봅니다.

처음 맞닥뜨린 사역이 어린이 전도였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잖아요.(마 18:1-5, 11:25-26 생물학적 나이를 넘어서) 잠깐의 어린이 사역을 경험하며 느낀 것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다보니 사교육 열풍이 거센 탓에 전도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다양한 통제(그중 하나를 살짝 언급하자면, 이슬람 문화)도 상당한 제약이 됩니다. 내적으로는 아이들의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사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욕심이 넘은 제 나이에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할 체력조차 도저히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사역에는 하나님의 젊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나 ‘사역자’라는 특정한 직분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이 일을 감당할 이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막상 다이트 산에 올라 수도 티라나를 넘어 알바니아 전역을 바라보니,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발판으로 삼은 복음 전도의 접근보다,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빌 1:18),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께 문안과 존중으로 따스함을 전하며 몰도바로 넘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씨앗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선교의 경험을 기록하다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생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를 가든

저는 저이니가요. 글을 쓸 지면도 한정되어 있으니.

앞서 알바니아에서 이슬람을 슬쩍 흘렸다면, 몰도바는 동방정교회의 경건함이 묻어 있습니다.(행 2:5; 10:2, 7; 13:43, 50; 17:4, 17; 22:12) 이곳에서는 한 달 정도 머물며 교사처럼 성경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동방정교회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열매인 프로테스탄트에게요. 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마을 길을 쓸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소련과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던 영향 때문인지, 몰도바의 목회자들은 사례비 없이 농사일, 건축일, 양봉 등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며, 참으로 귀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 순간, 문득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꿀벌” 말입니다.

네가 나는 곳까지 나는 날지 못한다 너는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만 나는 집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한다/ 네 가슴의 피는 시냇물처럼 흐르고 너의 뼈는 나의 뼈보다 튼튼하다 향기를 먹는 너의 혀는 부드러우나 나의 혀는 모래알만 쏘다닐 뿐이다/ 너는 우는 아이에게 꿀을 먹이고 가난한 자에게 단 꿀을 준다 나는 아직도 아직도 너의 꿀을 만들지 못한다/ 너는 너의 단 하나 목숨과 바꾸는 무서운 바늘침을 가졌으나 나는 단 한 번 내 목숨과 맞바꿀 쓰디쓴 사랑도 가지지 못한다/ 하늘도 별도 잃지 않는 너는 지난겨울 꽁꽁 언 벌 속에 장미를 키우지만 나는 이 땅에 한 그루 꽃나무도 키워보지 못한다/ 복사꽃 살구꽃 찔레꽃이 지면 우는 너의 눈물은 이제 다디단 꿀이다 나의 눈물도 이제 너의 다디단 꿀이다/ 저녁이 오면 너는 들녘에서 돌아와 모든 슬픔을 꿀로 만든다

반세기가 넘는 공산주의 체제와 정교회로부터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몰도바의 성도들은 순교적 신앙으로 더욱 단단히 다져진 듯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의 가정에서는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웬만큼 사는 형편인데도 TV가 없거나, 있어도 거의 시청하지 않던데, 내가 있어서 그런 걸까? 그래도 한 달이나 있었는데...’ 하지만 제가 본 것이 전부일 리 없겠죠.

주일에는 아침 8시에 모여 성경 공부와 찬양, 나눔의 시간을 갖고, 오후 4시에야 예배를 드린 후 저녁 6시쯤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모습이 보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있었습니다.(마 5) 여기도 거기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식은 커피를 마시며 글을 씁니다. ‘그들도 나를 엿봤을까?’ ‘주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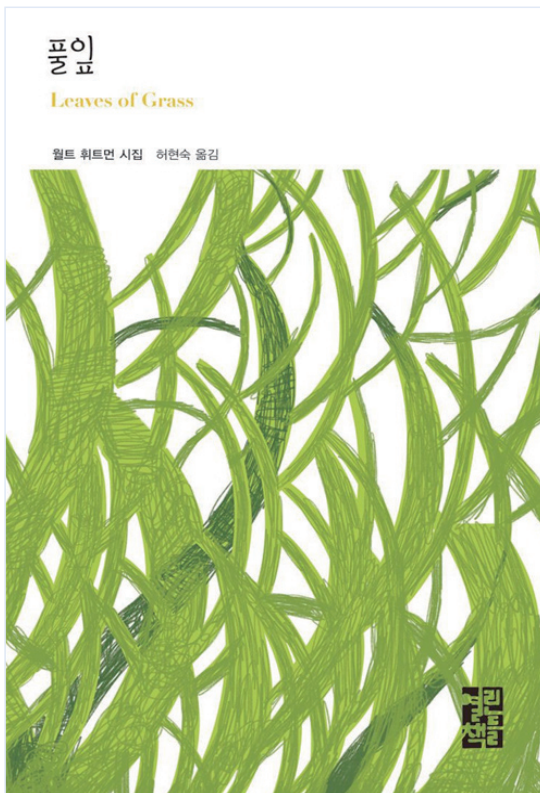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아 2:9)

## 『풀잎』의 시인 월트 휘트먼

박익수 집사

(예담교회, 성시신문 편집위원)

지금의 시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짧은 글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가 떠들썩해지곤 한다. 또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이 구축한 디지털 환경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이처럼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근저에는 깊은 신앙심을 지닌 인물들이 있었다. 에머슨, 소로우, 칼라일, 조나단 에드워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인물들 중에서도 미국의 위대한 시인,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에 대해 알아본다.



그는 시집 『풀잎』을 발간하면서 “내가 풀잎을 발간하게 된 주요 원인은 미국의 발전과 최후의 목적이 심령적이고도 신적(神的)인 것이 아니면 안 될 나의 확신에서이다.”라고 했고, 그 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목적인 사람은 노동하는 남자와 노동하는 여자다. 그들을 강건하고도 순결한 인격과 종교심으로 충만케 하여 그들의 근본적인 소유물 또는 상습으로서 선량한 마음을 제공하려 한다.”라고 했다.

그는 “나는 말한다. 온 세계와 하늘에 걸린 몇 별들은 종교를 위해서라고 나는 말한다. 사람은 아직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절반만큼도 경건하지 못했다고, 아무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절반만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한 경외하지도 않았으며, 아무도 아직까지 그들 자신이 얼마나 신성한가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조차 않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이 나라의 진정하고도 영원한 위대성은 그 종교에 있고, 이에 의하지 않고는 참되고도 영원한 위대함이

있을 수 없고, 종교 없이는 품성도 그리고 생애라 할 만한 생애도 있을 수 없고, 종교 없이 나라도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며 종교가 삶의 알파이자 오메가임을 재삼재사 강조한다.

그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믿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나는 안다. 내가 불멸임을 나는 안다, 내 생애의 궤도는 목수의 컴퍼스로써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나는 안다, 나는 어린이들이 볼놀이를 할 때의 불티처럼 빙빙 돌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님을 나는 안다, 내가 존엄함을, 나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또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원치도 않는다. 내가 갈 곳은 이미 확실히 정해져 있다. 주님은 거기 계셔서 내가 그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그에게로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신다. 위대한 벗 내가 사모해 마지않는 진실한 애인은 거기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자연관을 열어주는 작품에서 “어린이가 있다. 그 손에 가득 풀잎을 가지고 와서 묻기를 ‘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 나는 뭐라고 어린이에게 대답할까. 나는 여기에 대해 그가 아는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 나는 생각해 본다. 이건 아마 내 천성의 표시리라. 희망의 녹색 천으로 짜인 것,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수건이리라. 향수 냄새 풍기는 선물로 일부러 길바닥에 던져 놓은 것이리라. 그 한 구절에 인자의 이름을 사인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말아야.”

시인은 풀 한 포기에도 시인의 지식과 신앙과 사랑과 정을 담고 있다.

휘트먼은 평민 시인이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도 그는 “끼룩끼룩하고 마치 나를 부르는 듯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지. 그러나 나는 귀 기울여 듣는다. 그리하여 그의 뜻과 장소가 겨울 하늘 높이 저편에 있음을 안다.”

이렇듯 그의 시집 곳곳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시인의 심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는 당시 고향과 그 집 밖에서는 존경받지 못했지만, 에머슨이나 소로우 대작가들은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금 위대한 평민을 노래하고 자유와 자연, 미래 지향적 이상을 노래한 휘트먼의 위대한 시집 『풀잎』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 엄마! 동생 만들어주세요.

이관형 원장  
(춘천 자연유치원)

필자는 매일 아침 CBS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공익 광고 “출산은 기쁨! 돌봄은 다 함께!”를 접하며,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에 동참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시 지정 게시대와 놀이공원 등에 해당 메시지 <엄마! 동생 만들어주세요>를 담은 플래카드를 걸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심각한 상황이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약 1,000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현실을 피부로 체감하며 누구보다 그 심각성을 절실히 느껴왔다.

정부 역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송사들은 오히려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며, 결혼과 육아를 부정적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을 황금시간대에 내보내고 있다. 제목만 보아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MBC TV의 ‘나 혼자 산다’, ‘결혼 지옥’, SBS TV의 ‘솔로라서 너무 행복해요’, 채널A TV의 ‘금쪽같은 내 새끼’, YTN 라디오의 ‘조담소(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등은 여전히 정부 시책을 비웃고 방관하듯, 청년들에게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방송 매체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깊이 고민해 볼 문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대한민국을 ‘인구 소멸 국가’라고 부를 정도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조차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걱정했을까? 나눈 전도사로 잘 알려진 황창연 신부님의 농담처럼, 신부님까지 결혼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필자는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하며, 30년 전만 해도 한 자녀 가정을 보면 ‘무슨 사연이 있을

까?’ 하고 궁금해하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자녀 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저출산이 보편화되었고, 오히려 다둥이 가정이 신기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아이들은 ‘삼촌’이나 ‘이모’ 같은 친족 호칭을 사용할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가 낯선 문화로 자리 잡을지도 모른다.

요즘 한 자녀 가정은 주로 맞벌이를 하는 사업가나 직장인 가정이 대부분인 반면, 다둥이 가정은 목회자, 군인, 경찰, 다문화 가정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이들 사이에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출산 시대에 다둥이 가정은 그 자체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가정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 절감 문제는 노동력 부족과 노총각들의 결혼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으로 대체하는 시도 역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는 크신 계획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35:11)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결혼을 어렵게 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는 사탄이 주는 거짓된 감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창조 질서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듯,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 이 시대를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성공자, 축복자, 간증자가 쏟아져 나오길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 어버이날 행복한 외식/ 함박스테이크

이관형 권사

(한길교회/ 맛집기행가)

5월은 외식의 날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의 기념일이 많아 행복한 설렘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명절 못지않게 주머니 속 사정이 걱정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찌하랴, 꼭 치러야 할 날이다. 그나마 스승의 날은 김영란법 때문에 예전처럼 부담이 없어져 다행이다. (이참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도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안 될까? /웃음)

60을 바라보는 필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감사하게도 두 분은 큰 지병 없이 정정하게 지내고 계신다. 어찌다 한두 번 어버이날과 생신 등의 특별한 기념일 외에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좋은 음식점에 가려고 하면, 부모님은 아직도 자식의 돈 걱정 때문에 ‘잘 씹지 못한다’ 하시며 비싼 음식점을 외면하고, 일상이 바쁜 자식의 시간을 빼앗는다는 걱정 때문에 피곤하다시며 멀리 위치한 음식점은 피하신다. 그러기에 필자가 종종 찾는 동경(춘천교대 건너편), 갯포हतто(스무쉴 먹자골목), 연풍우가(안디옥감리교회 옆) 평남횃집(춘천댐) 등의 음식점에 부모님을 모신 적이 거의 없다.

이런 연유로 본가인 석사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가격은 물론 씹기에도 부담이 없고 영양가 또한 뛰어난 함박스테이크 집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부모님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식사 장소로 참고하기 바란다. (주의: 예약은 필수)

### 함지레스토랑(중앙시장/ 옛 KBS방송국 건너편)

아주 오래전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고향을 떠나 다시 이곳에 들르면 많이들 놀란다고 한다. 마차타임머신을 타고 30,4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경양식 식당의 정겨운 분위기, 그리고 이곳 시그니처인 함박스테이크(22,000원)는 여전히 맛있다. 그리고 그보다 놀라는 것



은 수십년 넘게 사장님은 물론 웨이터분들도 그대로 계시기 때문이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식사를 마치고 명동거리를 거닐면, 고로케가 맛있었던 구법원과 팔뚝이 맛있었던 거북당 빵집을 지나 육림극장 1층 실내 구석에 길게 뻗은 수족관 안에서 노닐던 금붕어 대가족들을 다시 만나지나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게 된다.)

### cafe 이야기(삼천동 라모스버거 옆 건물 2층)

일단 이곳은 시니어인 친절한 여사장님이 계신 곳으로, 억지로 꾸민 듯한 화려함이 없이 동네 사랑방 같은 편안한 분위기이다. 시골 장터에서나 팔듯한 큼직한 보리빵과 예쁘게 단장하고 나온 보들보들한 함박스테이크, 거기에 디저트로 커피를 모두 포함해서 12,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아울러 카페라는 이름답게 라떼와 커피 등의 여러 음료수가 오천원 이하의 값이라 많은 시니어분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다만 주차장이 없으니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갈 경우에는 카페 건물 입구에서 내려 드린 뒤 주변에 주차할 공간을 찾아 봐야 한다.



### 페리하우스 레스토랑(우두동 소양2교 강변 산책로)

이곳 또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으로 가족 혹은 모임 손님들이 주로 많이 찾는 곳이다. 실내 인테리어는 유럽풍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모호하게 올드한 곳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찾을만한 데이트 장소는 아니다. 하지만 맛과 플레이팅이 뛰어난 함박스테이크(19,000원), 함께 나오는 빵과 밥, 그리고 야채(크림)스프, 피클 대신 생뽕맛게 나오는 각두기와 단무지가 조화롭게 맛있다. 이와 더불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소양강 처녀상과 스카이워크 등의 소양강 경치는 마치 휴양지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디저트처럼 안겨준다.

오늘 소개해 드린 레스토랑 세 곳은 떡집처럼 떡 냄새가, 빵집처럼 빵 냄새가 맛있게 솔솔 풍기는 곳이다. 어느 때에 가도 늘 항상 사장님과 손님의 구분 없이 항상 밝은 미소와 잔잔한 웃음소리가 넘친다. 이를 지켜보다 보면 교회도 이와 못지않게 경배와 찬양이란 예수 향기가 넘쳐나야 함에도, 일부 교회의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모습, 이를테면 그 잘난 몇몇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서로를 지적하며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우선시하여 외식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

이제 곧 어버이날이 다가온다.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섬김은 물론이요, 천국을 바라보며 지내는 교회 어르신들의 병들어 지친 모습을 외면하지 말고 맛있는 식사라도 한 끼 섬겨드리자.

현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로,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TIP.** 식사 이후 헤어지는 자리가 아쉬워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면, 구봉산에 있는 한방카페 ‘궁’에 가서 쌍화차 혹은 십전대보차를 주문하자. 한 잔에 9,500원이라 비싼듯하지만 아래 사진처럼 보약 한 첩이라 한동안 잊지 못할 귀한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 청소년들의 기적

김춘배 화백  
(성시신문 편집위원)

생명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계절의 여왕,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어린이를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다행히도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화들이 많아 무척 고무적이다. 이미 소개한 <천국을 다녀온 소년>, <아이 빌리브>, <영 메시아>, <오두막> 등 아이들이 등장하거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들도 있었지만, 최근 필자가 유튜브에서 소년과 소녀들의 영적 체험을 그린 영화를 연이어 접하게 되어 더욱 의미 깊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작년 봄에도 다룬 것처럼, 유튜브에 좋은 기독교 영화가 참 많이 올라와 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마음>도 유튜브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이 영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다룬 감동적인 영화인데, 아직 보지 못한 독자분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기적을 믿는 소녀> The Girl Who Believes in Miracles는 정말 사랑스러운 믿음의 영화이다.

네이버에 소개된 줄거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어린 소녀 ‘사라’는 호수로 낚시를 갔다가 죽은 새를 발견하고 간절히 기도한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놀랍게도 죽은 새가 다시 살아난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응답해 주셨다고 믿지만, 이를 함께 목격한 오빠와 그의 여자친구 ‘신디’는 같이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상심한 사라는 외할아버지 ‘샘’과 단짝 친구 ‘마크’에게 호수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다. 그날 밤, 사라는 심하게 앓고 만다.

며칠 후, 오빠의 축구팀과 라이벌 팀인 ‘엘비’ 일행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엘비의 개가 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라는 기도하자 개

가 다시 살아나고, 이어 하반신 마비였던 마크마저 걷게 된다. 이로 인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라와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게 된다.

줄거리만 보아도 흥미롭고 가슴 따뜻한 영화임을 알 수 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미라 소르비노가 사라의 엄마 역할을 맡아 깊이 있는 내면 연기를 선보이며, 기독교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케빈 소르보도 출연한다. 또한, 당시 17세였던 오스틴 존슨이 주인공 사라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네티즌 평점 9.3(10점 만점)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불신자들에게도 믿음의 불씨를 전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기적의 소년> Breakthrough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신앙 영화다.

계모라는 이유로 마음을 열지 않던 아들이 운동 중 사고를 당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는 어머니는 주변의 걱정과 우려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아들은 기적으로 회복된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믿음의 강한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스타트렉>에도 출연한 배우 출신 록산느 도슨이 연출을 맡았으며, 크리스 메츠, 조쉬 루카스, 데니스 헤이스버트 등 인지도도 높고 연기력이 탄탄한 배우들이 출연해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선보인다.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이 바람직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의 놀라운 결과 중 하나가 기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신비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만으로도 가장 큰 기적이라 할 것이며,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보다 그 믿음의 깊이를 깨닫고 더욱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 김용성(Yongsung Kim)-Biblical Artist



국내외 150여회 단체전

\* 미국 Imanuel Church, 러시아 Gymnasium School,  
일본 Kyoto Imanuel Church, 프랑스 Jesus Village,  
중국 과기대 등 세계 100여 곳 작품 소장.

\* 세계최대 기독교미술 프린트 회사 Goodsalt사 주요 작가,  
2016년 세계 성화 작가 미국 전 지역 순회  
전 초대작가 / 현재 한국 미술인 선포회, 한국인물작가회  
KAMAN 회원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 초대작가

### 춘천 아가갤러리 전시안내

#### 제14회 부활절 기념 기획 초대전 Retrospection

- 이상근 작가 | 강원미술대전 초대작가
- 2025년 4월 25일까지 (주일은 휴관합니다)

#### 제1회 대한민국 기독교어린이 미술축제

- 대회 공모전 우수작 전시
- 2025년 5월 1일~30일



회상 - 구름기둥  
이상근 作

아가갤러리(춘천시 서면 경춘로 1091) / 문의: 033-262-9229



## 쓸개 빠진 놈

이시형 원장(이시형한의원)

‘담력(膽力)’이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뜻한다. 반면, 누군가 짓대 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쓸개가 빠졌다’고 비난한다. 여기서 ‘쓸개’는 한자로 ‘담(膽)’이라 하며, 인체의 주요 기관인 오장육부 중 하나로 꼽힌다. 이제 한의학을 통해 담의 생리적 역할과 병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한의학에서 담의 생리 기능은

첫째, ‘중정지부(中精之府)’로 불리며, 맑고 깨끗한 액체인 담즙을 저장하고 있어 소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담의 기능이 저하되면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중정지관(中正之官)’이라 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정신적 자극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때 이를 막거나 해소하여 기혈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돕고, 장부의 기능 활동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결단출언(決斷出焉)’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담은 결단력을 관장한다.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담에 이상이 생기면 한숨을 자주 쉬고, 입안이 쓰며 구역질이 나고, 쓴 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유 없이 불안하고, 누군가 자신을 잡으려 오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목이 마르고 침을 자주 뱉게 되며, 목이 붓고 아픈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더불어 몸이 오한과 발열을 반복하는 등 전신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풀이하면, 감기를 달고 사는 어린이들이 무서움을 잘 타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며, 편도가 자주 부어 열이 쉽게 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목이 답답해 자주 “음음” 하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정신적 긴장이 지속되면 변비가 동반될 수도 있다. 무서움을 잘 타는 아이들은 대개 눈이 크며, 손톱을 자주 물어뜯거나 야뇨증, 틱 증상을 함께 보이기도 한다.

어른들의 경우,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자주 꾸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입안이 쓰고 목이 마르며 어지럼증이 쉽게 생긴다. 한숨을 자주 쉬고 소화가 잘되지 않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작은 일에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담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책속의 책

박도준 목사(하늘뜻이룸교회, 글 익는 마을 독서모임)

(글 익는 마을 : 예수교장로연합회 통합 소속 춘천지역 목회자 5명이 매달 1권씩 선정된 책을 읽고 발제하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 권해생의 ‘빈 무덤 사건’

권해생 교수의 ‘빈 무덤 사건’은 예수 부활의 핵심 증거인 ‘빈 무덤’에 초점을 맞춰, 사복음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책입니다.

단순히 부활 사건을 변증하는 것을 넘어, 각 복음서가 빈 무덤을 통해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섬세하게 풀어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인정,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의 성취, 요한복음에서는 새 창조를 향한 표적을 발견합니다.

특히 ‘갈릴리’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부활이 제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지적인 이해뿐 아니라, 독자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싶은 분, 사복음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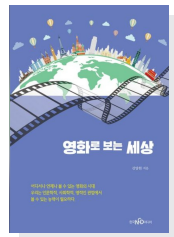
## 김양현의 ‘영화로 보는 세상’

김양현의 ‘영화로 보는 세상’은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영화 속에 담긴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독자들이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도록 돕습니다.

이 책은 49편의 영화를 소재로 인간의 삶, 사회 문제, 종교,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각 영화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와 함께, 영화 속에 담긴 메시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또한, 영화를 통해 제기되는 질문들을 독자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영화를 통해 인문학적 성찰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영화를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세상을 읽는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 김병완의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독서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단순히 정보 습득을 위한 독서를 넘어,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독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독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서 전략, 독서 방법, 독서 후 활용법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줍니다. ‘밑줄 긋기’, ‘메모하기’, ‘마인드 맵 활용’, ‘서평 쓰기’ 등 다양한 독서 기술을 소개하며, 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는 독서를 통해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효과적인 독서법을 익히고, 능동적인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싶은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시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박복연 박해옥 박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현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철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순 김용배 김용선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중복 김중숙 김중옥 김종익 김중찬 김중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영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난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숙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정원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준하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손갑수 송근영 손미화 손수정 송영인 손정심 손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승흠 연정화 엄은희 엄정원 오성남 오성애 오소연 오제영 오홍금 오홍수  
 용애중 용영옥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술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점순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명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은미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학복 윤홍묵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숙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희 이명일 이병철 이병연 이선임  
 이상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는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호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기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운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웅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도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운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욱 차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문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중대 최종민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한은희 한명수  
 한성우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선 한희현 한서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희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음 황변구

## 후원교회

갈릴리감리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신성감리교회 주의숲교회 춘천새누리교회 하늘기쁨교회  
 강변제일성결교회 새춘천성결교회 아미교회 주찬양교회 춘천온누리교회 하늘평안교회  
 강원침례교회 석사감리교회 암스트롱병원교회 주향교회 춘천우리교회 한빛교회  
 거성침례교회 소양감리교회 엠마오교회 초대교회 춘천은평교회 한울섬김교회  
 그말씀양문교회 소양성결교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축복교회 춘천은혜장로교회 화목교회  
 나눔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예담장로교회 춘천광명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효신장로교회  
 더좋은순복음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예사랑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장로교회 효자감리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예수촌교회 춘천광장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후평제일교회  
 밝은빛장로교회 순복음조은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사랑의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우두감리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침례교회  
 사암성결교회 섬이있는교회 임마누엘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평화교회  
 산솔교회 신복교회 제자감리교회 춘천성광교회 평성성결교회

##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이시형한의원 자연유치원  
 ▶ 명단(단체)이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 신한 131-005-937566(춘천시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등록번호 춘천.바00012 발행인 이수형, 김훈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김훈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김진솔, 박익수 편집·발행 춘천시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 THE WIND

1st 춘천학교기도올씨운동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5팀 특위십 X 학생기도장 X 홍정수 목사

학교기도올씨운동 사역

06.07

춘천신성교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381

학교별 부스체험 pm 1:00 / 집회시작 pm 3:00 (입장 pm 2:30)

선입장 밴드는 PM 1시부터 나뉘드립니다.

주최 학교기도올씨운동연합 주관 춘천학교기도올씨운동 참여신청 및 문의 010.9085.6590 등록 FREE 인스타 @the\_wind\_mvnt\_cc

## 성시 25년 3월/성경퍼즐퀴즈 : 가족들과 함께 맞춰보세요

### 참여방법

지난 번 호 정답자를 발표해주세요

|   |   |   |  |  |   |   |
|---|---|---|--|--|---|---|
|   | 1 |   |  |  | 1 |   |
|   |   |   |  |  |   |   |
| 2 |   | 2 |  |  | 3 | 5 |
|   |   |   |  |  |   |   |
|   |   |   |  |  |   |   |
| 4 |   | 3 |  |  |   |   |
|   |   |   |  |  |   |   |
|   |   | 5 |  |  |   |   |

### \* 가로 힌트 \*

- 복음의 시작, 예수그리스도는 누구인가?(막1장)
- 제자들이 알지 못한 부활은 무엇인가?(요20장)
- 솔로브핫의 딸들의 기업을 말한 므낫세 손자는?(민36장)
- 바라바와 예수님이 바꾼 것은?(막15장)
- 거룩한 향기름은 일컫는 기름은?(출30장)

### \* 세로 힌트 \*

-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한 사람은?(눅23장)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며칠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나?(막8장)
- 낫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은 어디에 죽으심인가?(빌2장)
- 합당한 자가 되려면 무엇을 지고 쫓아야 하는가?(마10장)
-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세운 곳은?(수4장)





**2025 Again 문학의 밤은 춘천 지역의 학생들이  
드라마, 찬양, 음악, 댄스 등  
문화의 장으로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문학의 밤은 1980년대, 1990년대  
한국 교계에서 활발히 열렸던 문화 행사였습니다.  
또한 춘천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연합하여 함께 열렸던 문화 축제였습니다.

#### 행사일시

2025. 5. 24 (토) 오후3:00

#### 장소

춘천중앙감리교회 (선교교육관 3층)

#### 참가대상

춘천 교회 중고등학생

#### 문의.후원

춘천성시화운동본부(010-9698-2993) / 신협. 131-005-0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일정

예배

오프닝공연, 찬양

발표회

참가단체 발표

상품권추첨

교회추첨, 개인추첨

- 드라마, 찬양(밴드, 개인 등), 댄스 등  
각 교회 중고등학생부 발표.
- 오프닝 공연(춘천CCC 아가페 워십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교회연합(중고등부)